

기아차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반가운 이유

- ① 성숙한 광주 노사문화 이끌어
- ② 광주공장 50만대 생산 가속도
- ③ 빈사상태 지역경제에도 '활력'

기아자동차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매듭시켰다.

대표적 강성 노조인 기아차 노조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무파업으로 임금협상을 마치면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틀실히 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0만대 생산을 돌파한 광주공장은 올해도 사상 최대 생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 산업평화 이끈 선봉장=기아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의 산업평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19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파업 임협 타결이라는 새 역

사를 쓴 기아차 노사는 올해도 무파업 전통을 이어 선진 노사문화의 이정표를 튼실히 다지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경영실적이 좋아지면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안정된 노사관계가 우수한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그 결실을 노사가 공유함으로써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노사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체험한 것이다.

기아차 직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 금을 얻게 됐다. 특히 임협 재합의를 통해 주가 임금인상 대신 사회공헌기금 조성이

합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이행을 선택해 한층 성숙한 노사문화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생산 신기록 행진 청신호=2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기아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생산과 판매를 안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사상 첫 40만대 생산을 돌파한 광주공장은 올해 48만3000대를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생산능력 50만대 구축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생산목표를 20% 이상 높여 잡은 것이다.

가장 큰 변수로 여겨졌던 임협이 '무파

노사 신뢰와 고객 사랑으로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KIA 기아자동차 전국 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난 19일 노조 조합원 친반투표에서 임금협상 재합의안이 가결된 이후 이삼웅 기아차 사장과 김성락 노조 지부장이 2011 임금협약안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기아차 제공〉

업 타결'로 해결되면서 광주공장의 생산 목표 달성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광주공장은 올 들어 7월까지 29만 1699대를 생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만794대)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생산 목표인 48만3000대를 훌쩍 넘겨 50만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50여 협력업체 동반성장=빈사상태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우려를 표 시했던 250여 지역 협력업체들 역시 이번 타결에 기쁨을 품고 있다.

기아차는 다음달 1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11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

을 보일 신형 콘셉트카 'KED-8(프로젝트명)'의 외관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강하고 역동

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스타일로 디자인된 'KED-8'은 후륜구동 4도어의 럭셔리 스포츠 세단 콘셉트카다.

〈기아차 제공〉

있다.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타결에 기쁨을 품은 지역업체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

안이 한차례 부결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무분규로 임협이 타결됐다"며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제공〉

250여 협력업체는 그동안 광주공장 50만 대 증산효과와 지난해 무분규 등 각종 호재 속에 서비스를 늘리고 매출이 증대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유통가 역시 크게 반기고 있다.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기아차 성

과금 지급에 맞춰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분주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임금협상